

## 당신은 벌거벗었는가? 하나님의 갑주

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를...

“너는 ‘내가 부자라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’ 라고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있다” (계 3:17)

“보라,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,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걸어 다녀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.” (계 16:15)

요한 계시록에는 “벌거벗은” 것이 기록 되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? 그 대답은 토라 (Torah)에서 찾을 수 있다. 창세기 2:25 절에, 새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동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있다. “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.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하여 떨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있다.

7.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들을 만들었다.

8.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.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.

9.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. “네가 어디 있느냐?”

10. 그가 말하였다. “당신의 소리를 제가 그 동산에서 들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.”

11. 그가 말씀하셨다. “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전했느냐? 내가 먹지 말라고 네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[난 열매를] 네가 먹었느냐?” (창 3:7-11)

“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”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 그들은 그들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‘벌거벗은’ 것을 몰랐는가? Zohar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.

...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, Elohim 께서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갑주를 벗기고, 그를 감싼 성스러운 글자들도 벗기셨다. 그 후에 그와 그의 아내는 두려워하고, ‘벗겨졌다’는 것을 알게 되고; 그렇기 때문에 “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”라고 적혀있다. 그들은 처음에는 죽음에서 보호 그리고 공제대상을 준 그 영광스러운 크라운으로 덮혀있었다.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때 그들의 공제대상에서 박탈되었고, 죽음이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,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, 그들 자신과 모든 세계에 죽음을 가져왔다.’ (Zohar 1:53 a)

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을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갑주를 입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들이 죄로 떨어진 후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갑주가 벗겨 져기 때문이다. 나중에 이 갑주는 시내산에 Torah 와 함께 회복이 되었으나,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분실되었다:

1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“가거라, 너와 미즈라임 땅에서 내가 올린 그 백성은 이곳에서 올라 가거라. 내가 아브라함과 이즈함과 야아콥에게 ‘내가 네 자손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.’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가거라.
2.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크나인인과 에모리인과 헬인과 프리지인과 히비인과 예부스인을 쫓아낼 것이다.
3.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. 그러나 나는 네 가운데서 올라가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목이 뺏뺏한 백성이어서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끝장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.”
4. 그 백성이 이 악한 말씀을 듣고 애곡하였다. 어떤 사람도 패물을 걸치지 않았다.
5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“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. ‘너희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어서 내가 네 가운데서 올라가는 순간 너를 끝장낼 것이다. 지금 네 패물을 네게서 내려놓아라. 그리하면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 지를 내가 알 것이다.’ ”
6.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 그들의 패물을 떼었다. (출 33:1-6)

탈무드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:

랍비 심라 (R. Simla)는 강의했다: 이스라엘은 ‘우리가 하겠습니까’보다 먼저 ‘우리가 귀를 기울것입니다’라고 (출 24:7) 대답을 했을 때 육십만 명의 섬기는 천사들이 내려와 모든 이스라엘 인에게 두개의 왕관으로 덮었는데, 그 뜻은 하나의 보상은 ‘우리가 섬길 것’이고, 또 다른 것은 ‘우리가 순종’하는데 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마자 백이십만명의 파괴 천사들이 내려와 왕관을 벗겼다. 기록 되어 있기를: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들의 패물이 벗겨진 것이다. (출 33:6) 랍비 하니나 (R. Hanina) 아들 랍비 하마 (R. Hama) 이렇게 말한다: 그들은 호렙 산에서 왕관을 덮고, 그 호렙 산에서 왕관을 벗었다. 우리가 기록했듯이: 그들은 왕관을 입었다. 또한 기록 되어 있듯이: 그들은 왕관을 벗었다. 랍비 요하난 (R’ Johanan)는 이렇게 관찰했다. 모세는 특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왕관들을 받았으니, 그 비슷한 곳에 기록 되어 있듯이: ‘모세가 그 천막을 취했으니’ (출 33:7) 레쉬 라키쉬 (Resh Lakish) 말하기를: 그 거룩하신 분,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, ‘미래에 우리한테 왕관을 다시 회복하실 것’이 라고 말한다.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‘여호와와 그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그들리 기쁜 외침을 지르며 짜온 (Zion)으로 올 것이다’ (사 35:10); 옛날의 기쁨이 다시 우리의 머리에 있을 것이다 (b. Shab. 88a)

조하 (Zohar)는 이 왕관들을 자세히 말 해 주고 있다.

랍비 하이야 (R' Hiya)는 말한다: ‘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 세계는 빈곤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노아가 와서 제사를 함으로서, 이 세상은 다시 부유케 되었다.’ 랍비 호세 (R' Jose)는 ‘세상이 제대로 안정 되어있지 않고, 지구 자체는 뱀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이 탈퇴가 아니되었으나,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서 있을 때, 생명의 나무를 꼭 잡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다시 정착되었다.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죄를 그 ‘거룩한 그 분 (Holy One),’ ‘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분 (Blessed be He),’ 에게 지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았을 것이다. 왜냐면 뱀의 찌끼가 그들 안에서 일서 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, 토라의 첫 판은 깨졌다. 그 판들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했고, “인류의 끝”인 독사(evil serpent)에게서 자유가 된 것이었다. 레위가 일어나 죄 지은자를 학살했을 때, 그 나쁜 독사는 그들(레위)앞에 갔었지만, 그 독사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 권능도 없었다. 왜냐면 그들은 그 독사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갑주로 입혀있기 때문이다. 그 때,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, “지금 네 패물을 네게서 내려놓아라” (출 33:5). 이것이 이스라엘에 놓여진 독사의 능력의 신호가 된 것이다. (히브리어 단어인 ‘바이트나셀루’ 는 또 다른 한 개의 손에 의해 벗겨졌다는 것을) 나타낸다. 이 패물은 토라가 이스라엘에 주어질 때에 호렙 산에서 받은 것이다. (Zohar 1:63b)

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, 대리인 (모세)의 얼굴 조차 볼 수가 없었다. 이것은 어떠한 뜻인가? ‘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시내산에 주어진 패물을 빼앗긴 후,’ 즉, 시내 산에서 주어진 그들의 장신구는 악한 독사에게, 그(것)들에 힘이 있으면 안된다 하기 위한 것’이 박탈된 것이다. (Zohar 1:52 b)

이 갑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 “빛의 갑주”이다:

12.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.

13. 낮에 해하는 것처럼 단정히 걸어갑시다. 유흥과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분쟁과 기기에 빠지지 말고

14. 오지 주 예수아 마쉬아흐 (Adon Yeshua Mashiach)로 옷 입으십시오 욕심을 채우려고 욕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. (롬. 13:12 - 14)

또한

10.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.

11. 사탄의 술책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.

12.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과 악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.
13.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갖추십시오.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.
14.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, 의의 갑옷을 입고,
15.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발을 싸매고,
16.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악인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
17.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.
18.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으로 기도하며, 늘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를 꾸준히 하십시오. (에 6:10-18)

그리고 왕관은 우리가 읽고있는 Ketuvim Netzarim (Nazarene 의 글)이다:

나의 형제들이여, 여러분이 여러 자지 시험에 빠질 때마다 모두 기쁘게 여기십시오. (약 1:2)

끝으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 그 날에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니 나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. (딤후 4:8)

...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... (계 2:10)

...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. (계 3:11)

당신은 이 면류관이 없으면, 당신은 하나님의 갑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다. 그리고 당신이 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, 당신은 영적으로 '벌거 벗은' 것이다

\*\* 직역 성경을 사용함